



주간통일정세 2009-36(2009.08.31~09.06)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3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함북서 경제시설 시찰 계속(9/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성진제강연합기업소와 김책대흥수산기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 보도는 함경북도 경성군과 명천군의 경제시설들을 현지 지도했다는 3일 보도 이후 하루만임.
 - 김 위원장은 성진제강연합기업소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주체철에 의한 가장 선진적인 제강법을 완성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 완성한 주체철에 의한 제강법을 생산에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야금공업의 주체화를 빛나게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등 노동당 책임간부들이 수행

- **김정일, 함북도 경제시설 현지지도(9/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북도 경성군과 명천군의 여러 경제시설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경성혁명사적관과 염분진혁명사적지, 경성애자공장, 김정숙요양소, 칠보산유원지, 황진온천마을 등을 시찰, 현지지도에는 홍석형 함경북도 당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등 노동당 책임간부들이 수행

- **김정일, 군부대서 공연 관람(9/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264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방문, 부대 장병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부대 장병들이 “훈련을 강화하여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경계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으며 이들과 기념촬영을 했다고 통신은 보도,
 - 그는 이어 이 부대의 장병, 군인가족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 이날 군부대 시찰과 공연관람에는 북한군 대장들인 현철해, 리명수를 비롯한 군대의 지휘간부들과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당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통일신보, 현 남북관계 전환이나 현상유지냐 기로(9/5,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5일 ‘자주의 대를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 남북관계는 “민족의 기개와 존엄을 다시한번 떨치는 획기적인 전환이나, 아니면 어물어물 시간이나 보내는 현상유지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남측 당국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촉구
- 통일신보는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대결과 반목으로 6.15이후 좋게 발전해온 북남관계에 파국의 1년반이라는 공백을 초래한 교훈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 또 “북남관계는 어느 일방만의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고 민족 모두의 이익을 위한 관계이고 통일발전을 위한 관계”라며 특히 남북관계의 “주인도 북과 남의 쌍방 당국이고 우리 민족”이라고 역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남측 당국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요구

● 美 초대형 ‘병커버스터’ 생산 비난(9/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미국의 신형무기는 결코 만능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최근 북한과 이란의 지하 핵시설 등을 겨냥한 초대형 관통폭탄(MOP)인 ‘병커버스터’의 조기 생산 움직임에 대해 “제2의 조선전쟁 도발계획을 실천에 옮기려는 극악한 범죄행위”라며 비난, 통신은 “현실은 미국이 변화에 대해 떠들고 있지만 그의 호전성에는 어떤 변화도 없으며, 미국이야말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주범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의 모험적인 전쟁 책동을 각성있게 주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자위적 조치들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 조선신보,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 양자택일(9/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대화냐 제재냐’ 시한부 양자택일, 편지에서 밝힌 조선의 비핵화지향”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조선의 요구대로 사죄를 하고 지금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지 못한다면 우선 대화를 할 수 있는 나라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미국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이 보낸 편지의 핵심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
- 신문은 8월 초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난 사실을 상기시킨 후 “편지에서 또한 주목되는 것은 비핵화지향에 관한 표명”이라며 “편지를 통해 표명된 비핵화지향은 조선측이 ‘평양에서 이룩된 견해일치’를 전제로 하여 결단과 행동의 준비



를 갖추어 놓았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

- 또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을 북한이 여러 차례 천명했음을 상기한 후 “미국의 오바마정권은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나라의 ‘도덕적 책임’에 대하여 말하면서 ‘핵이 없는 세계’를 지향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며 “조선측도 여기에 반대의견은 없다. 쌍방이 대화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두가지 지향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 신문은 “조선의 금후 행동은 미국이 시한부 양자택일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달려있다”고 신문은 덧붙였음.

● 北, 내각 부총리에 박명선 임명(9/4,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4일 ‘정령’을 통해 박명선을 내각 부총리로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북한 내각의 부총리는 4명 가운데 지난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의 12기 1차 회의 당시 광범기, 태종수, 로두철 3명이 유임되고 2003년 9월 임명된 전승훈 대신 전자공업상을 지낸 오수용이 새로 기용됐으나, 지난달 태종수 부총리가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돼 이번 인사는 태 부총리의 자리 이동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임. 조선중앙통신은 신임 박 부총리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북한 주요 인물 가운데 박명선은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에 이어 12기 대의원이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부의장과 내각 인민봉사위원회 대외봉사국 국장을 거쳐 평양 대외봉사학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인물이 있으나 동일인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 상황 매우 나빠(9/4, 연합)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4일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abysmal)’고 밝힘.
-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회람된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2008~2009년 상반기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북핵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들었음.
-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정권이 빈곤과 공포, 차별, 박해, 착취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 항목을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 축소로 원조단체의 도움을 받는 북한인의 수도 2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
- 그는 북한 정권에 87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식량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를 처벌하지 말 것, 공개 처형을 중지할 것, 국방예산을 사회 분야 예산으로 전용할



것,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 그는 또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

● 北, 남북·북미관계 동시개선 입장(9/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4일 ‘정세 주도의 열쇠는 우리민족끼리 이념’이라는 제목의 평양발 기사에서 “조미(북미), 북남의 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선반도의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고 강조, 현재 북한의 입장이 통미봉남이 아닌 북미 및 남북관계의 동시 개선에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는 “긴장완화를 지향한다면 북, 남, 미국의 엉클어진 이해관계를 풀고 서로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며 “종전처럼 북·미·남의 대결관계가 지속된다면 평화 논의는 없다”고 언급, 신문은 지난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과 북한의 특사 조문단의 서울방문 등을 “8월의 사변”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이같은 행보는 “(남한) 실용정부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언급
- 신문은 특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북 제재로 인해 “6자 회담의 구도는 허물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핵문제를 주제로 조선반도의 안보문제가 다시 논의될 경우 북남관계의 진전 상황은 중요한 변수”라며 “남측의 진로선택이 주목”된다고 언급

● 北중앙통신이 전한 北유엔대표 편지 내용(9/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4일 보도, 통신은 “그는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 위원회가 우리에게 그 무슨 해명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천명한 원칙적 입장과 대응조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고 밝혀 이 서한이 대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에 압류된 후 유엔 제재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한 응답임을 밝힘.

● 北방송, ‘9·9절’ 앞두고 정권수립 찬양(9/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오는 9일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 61주년을 앞두고 3일 ‘위대한 수령님의 건국업적 영원하리’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정권 수립을 찬양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유산을 물려받아 북한을 융성하게 하고 있다고 선전
- 방송은 김일성 주석이 “10대의 어린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 20대에는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와의 전면대결을 선포했으며, 30대에는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고 찬양, 방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간부들에게 “9.9절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수반을 모신 날”이라며 “사실 말이 쉽지 30대에 국가수반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리 수령님만 하실 수 있었



다”고 말했다고 소개

● **北, 브라질대사에 리화근 임명(9/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브라질 주재 대사에 리화근을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인용해 보도, 리 대사는 2005년 5월 임명됐던 박혁 대사의 후임이며, 인적 사항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음. 전임 박 대사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대사를 겸임했었으며 북한과 브라질은 2001년 3월 9일 수교

● **北매체에李大통령 험구 재등장(9/3, 평양방송)**

- 서울을 방문했던 북한 특사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고 돌아간 뒤 지난달 말부터 북한의 각종 매체들의 대남 비난물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역적패당” 등의 험구가 사라졌다가 3일 평양방송에 재등장
- 평양방송은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방송한 ‘주택난을 통해 본 남조선 사회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방송물에서 이 대통령의 실명에 “역적패당” 등의 험구를 붙이거나 이명박 정부를 “괴뢰 집권당국”이라고 표현, 방송은 또 “이명박 독재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 투쟁도 선동

● **北노동당 후보위원 강순희 사망(9/1,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강순희(70, 여) 중앙경공업제품검본관 부관장이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 부관장의 사망에 조화를 보냈다고 전했다나 그의 사망 일시와 사인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1934년생으로 인민경제대학을 졸업한 강 부관장은 최고인민회의 제8기, 9기와 11기 대의원을 지냈으며 노동당 제3경제사업부장, 경공업부 부부장, 당 경공업위원회 부위원장, 경공업성 부상 등을 거침.

● **노동신문, 150일 전투 최대 성과 마무리 촉구(9/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15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돌격 앞으로!’라는 제목의장문의 사설을 싣고 “올해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놀래우는 새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며 “150일 전투 성과를 최대로 올려야 다음 단계의 투쟁을 더 본때 있게 벌이고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역사적인 변혁을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삼남 김정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50일 전투’는 4월 20일에 시작됐기 때문에 오는 17일 종결될 예정
- 신문은 “세계적인 위성 발사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선군조선의 인민답게 강한 민족적 자존심을 가지고 150일 전투에서 조선 사람의 슬기와 지혜, 자력갱생의 기질을 힘있게 과시해야 한다”며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킴.

- 이 신문은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기관 일꾼들”에게 특히 희천발전소 건설, 남흥 가스화 대상공사, 평양시 10만세대 살림집 건설 등 주요 사업의 목표 달성에 주력할 것을 주문

● 北김정일 영화부흥 추진, 당에 영화부 신설(9/1, 연합)

- 북한이 지난 2월 노동당 내에 영화부를 신설하고 부장에 최익규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짐.
- 한 대북 소식통은 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지시로 노동당 안에 영화와 무대공연 부문을 전담하는 영화부가 설치됐다”며 “영화부는 체제상 당 선전선동부 안에 배속됐지만 국제부 등 다른 부서처럼 비중과 역할 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독립적인 부서나 다름없다”고 전언, 영화부 신설은 체제유지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영화를 제작·보급할 필요성을 새삼 감안한 조치라는 것이 이 소식통의 설명
- 다른 소식통도 “북한이 올해초 노동당내에 영화부를 신설하고 최익규 전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부장에 임명했다”고 전언, 이 소식통은 “지난 3월 최익규 부장이 북한 언론보도에 ‘당 부장’으로 등장했을 때 선전선동부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당초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선전선동부장은 여전히 공석인 채 김기남 당 비서가 당 역사연구소와 함께 선전선동부를 관장하고 있고 최 부장은 영화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 그는 “영화부의 선전선동부 배속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 영화부가 신설되고 최익규가 재등장하게 된 것은 올해 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화를 관람하다가 “왜 요즘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못하느냐, 최익규를 데려다가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짐.
- 그 결과 지난 2월 당 선전선동부의 영화과를 확대해 영화부가 신설되고 내각에도 국가영화위원회가 신설됐으며, 2005년 당노 등 지병으로 은퇴했던 최익규 전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당 영화부장 및 국가영화위원장으로 복귀하고 3월 실시된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최익규 부장은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김정운의 후계체제 구축 선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이 작업은 김기남 비서와 리재일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맡은 것으로 알려짐.
- 국가영화위원회의 당 책임비서에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출신의 리상태가 임명됨.



설 마련을 추진하는 등 북한에서도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방북한 등대복지회 신영순 이사가 4일 밝힘.

- 7월 하순 원산 등지를 다녀온 신 이사는 “원산에선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들이 유럽연합(EU)과 호주 마라나타 신탁회사를 통해 삼륜 오토바이 8대를 공급받아 짐과 사람도 날라주고 있었다”며 “탄광에서 일하다 사고로 다리를 잃은 50대 장애인이 의족을 한 채 삼륜 오토바이를 양손만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설명

● 북중 접경 지역 밀수 성행(9/4, 아사히신문)

-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밀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의 수출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밀수업을 하는 한 북한 여성(42)은 아사히 신문에 한국산 DVD 밀수입으로 “땀을 때는 하루밤에 130만원 가량을 벌 때도 있다”고 언급, DVD 밀수입 이외에도 북한산 금 등 보석과 모피 등을 중국에 밀수출하며 이익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함. 하지만 이의 절반은 접경 지역을 경비하는 북한의 군인이나 정부 간부에게 밀수 묵인용 뇌물이나 접대비로 사용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1-24일 개최(9/3,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최대 규모의 무역박람회격인 국제상품전람회가 예정대로 9월 21-24일 열린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일 보도
- 평양에 있는 ‘유럽기업협회’는 이 방송측과 전화통화에서 “가을철 전람회가 당초 예정대로” 열린다고 밝힘. VOA는 특히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의 참가 문제와 관련, “주최측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신청할 경우 다른 외국 기업보다 20-30% 저렴하게 장소를 제공할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고 보도
- 올해로 5회째인 가을철 전람회는 북한 무역성 산하 조선국제전람사가 주관하고, 광고관련 업무를 맡은 ‘조선광고회사’가 외국기업의 전시품 반출입 허가 수속을 함께 담당하며, 화물 수송은 이탈리아에 본사가 있고 평양에도 지사를 둔 국제운송업체 ‘오팀’사가 대행

● 北, 올해 가을 유럽에 재생에너지 연수단 파견(9/3, 자유아시아방송)

- 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이 스위스의 대북 지원단체의 초청으로 올해 가을 풍력발전을 비롯해 태양에너지와 수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연수단을 유럽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



- 북한에 풍력발전기 설치를 지원하는 캠퍼스 파워 크리스투스의 북한 담당자 스테판 부르크하르트씨는 이 단체가 북한의 황해북도 지역에 300W와 2KW 규모의 풍력발전기를 각각 1대씩 이미 설치한 데 이어 북한의 요청에 따라 추가 지원한 2KW짜리 풍력발전기의 설치가 끝나는 대로 북한 연수단을 유럽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은 지난 3월에도 재생 에너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수단을 유럽에 보내 스위스와 네덜란드, 독일을 순방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비자 문제로 성사되지 못했음.
 - 캠퍼스 파워 크리스투스는 2020년까지 북한에서 총 500M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풍력발전기를 확대 설치하는 사업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방송은 전언
- **유엔기구들, 北과 작황 실사단 파견 논의(9/2, 미국의 소리 방송)**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의 올해 농작물 작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사단을 공동파견하는 방안을 북한 당국과 협의중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2일 보도
 - FAO의 청 팡 아시아 담당 경제전문가는 VOA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달 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작황 상태와 생산성, 산출 등을 점검하기 위한 적당한 시기는 9월이며, 수확량 조사는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
 - FAO와 WFP는 지난 1995년부터 매년 한두 차례 북한 당국의 초청 아래 실사단을 파견해 작황 조사를 벌여왔지만 2005년부터는 북한 측의 거부로 작황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작년 10월 재개
 - 팡씨는 “북한은 올해 기상조건이 양호했지만 비료 공급 부족 등이 이유로 작황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올해 비료 사용을 크게 줄였는데 이는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료 지원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고 언급
- **프랑스 지원단체, 北에 토끼 지원사업(9/1, 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 비정부기구(NGO)인 ‘프리미에 위장스’가 중국에서 400마리의 토끼를 구입해 수주내로 북한의 평안북도와 황해북도의 7개 협동농장에 보낼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
 - 이 단체의 데이비드 제르맹-루빈 대북사업 담당자는 “지원된 토끼가 북한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비슷한 환경인 중국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현재 번식력이 뛰어난 토끼를 골라내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10년 말까지 북한에 토끼의 번식력을 높일 수 있는 선진 사육 기술을 전수하고 관련 장비를 제공해 북한의 토끼 생산능력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소개
 - 프리미에 위장스는 평안남도 평성시와 남포시, 황해북도 토산군 등 세 지역에서 병원 재건 사업도 펼쳐 평성에 있는 도 병원과 남포시 병원의 난방과 환기 시설을 모두 교체했고 현재 식수를 공급하고



오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 중임. 제르맹-루빈씨는 “북한의 병원을 재건하는 사업을 위해 직원 2명이 북한에 상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1명을 추가로 보냈다”며 “내년부터 북한 내 다른 병원에 대한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아직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언급

● **北논밭, 비료부족으로 초록빛보다 노란빛(8/31, 연합)**

- 북한 논밭의 작물들이 비료 부족으로 인해 초록빛 대신 노란빛을 띠고 있는 곳이 많이 목격돼 올해 가을 작황이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최근 북한 농업지원을 위해 방북하고 돌아온 농업전문가들이 일차된 진단을 내놓고 있음.
- 월드비전 관계자도 “이번 방북 기간에 량강도 대흥단군과 평안남도 중화군 등을 다녀 왔는데 가는 곳마다 벼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비료를 제대로 주고 있는 곳은 벼들이 속속 자라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시퍼렇게 자라고 있지 못했다”고 언급

라. 군사 관련

● **北 핵시설 재건 흔적 없어(9/5, 연합)**

-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로 불능화 되었던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파괴된 냉각탑이 복구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5일 밝혔다. ISIS는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8월10일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를 위성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파괴된 냉각탑 시설 부근에서 어떠한 재건 활동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위성사진에 따르면 불능화된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은 여전히 파손된 상태였고, 이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기 위한 어떠한 자취도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영변 핵시설 원자로의 냉각탑은 지난해 6월27일 핵 시설 불능화 약속 이행 의지를 과시하는 이벤트로 북한이 세계 주요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폭파했으며, 원자로는 6자회담 합의사항인 불능화 조치중 하나로 불능화 되었음.

● **北경비정 1척 한때 NLL 침범(9/4, 연합)**

- 북한 경비정 한 척이 3일 오전 1시43분께 서해 백령도 동북방 10km 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6분여 간 침범했다가 되돌아갔다고 군 당국이 4일 밝힘. 우리 해군은 NLL에 접근하는 북한 경비정을 향해 “귀측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경고통신을 했으나 북측 경비정은 응답하지 않은 채 NLL을 넘은 것으로 알려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것은 올 들어 이번이 9번째임.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김정일 일대기 기록영화 2부 제작(9/6, 조선중앙통신)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애에 대한 기록 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 시리즈중 제2부 ‘혁명전통을 빛내이 시며’를 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2부는 김정일 위원장이 1950년대 중엽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답사길을 개척하고 1970년대에 ‘왕재산혁명사적지’와 ‘삼지연혁명전적지’ 건설을 받기 및 지휘한 내용 등 이른바 “선군혁명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사업을 이끈데 대한 역사적 자료들”을 중점으로 수록하고 있다고 통신은 보도
- 앞서 지난 7월 제작돼 8월 말 첫 방영된 1부 ‘조선을 빛내이리’는 김 위원장의 출생부터 6.25전쟁시기 등 유년시절과 대학졸업까지 성장기를 다뤘음.

● 北매체, 폐 약하면 냉·온탕욕 피해야(9/6,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6일 ‘건강상식-체질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권고’라는 글에서 “폐기능이 저하되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도 떨어지므로 자극을 주는 것을 반드시 삼가야 한다”면서 “폐가 약할 때에는 적당한 온도의 물로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했음.

● 북한 청소년 5만명, 클린턴 떠나자 눈물(9/5, 조선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클린턴이 북한을 찾았을 때 대(大)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을 준비해놓았음. 그는 클린턴에게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 관람을 세 차례나 제의했으나 클린턴은 음식으로 화제를 돌리며 거부
- 클린턴과 김정일의 면담 날 평양에서는 4만~5만명의 청소년이 폭염 속에서 서 있었는데 이는 언제 공연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임.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에게 대기 특별명령이 전달된 것은 클린턴 방북 1주일 전임. 내용은 “장군님을 모시고 ‘1호 행사’가 진행될지도 모르니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것으로 1호 행사란 김일성이나 김정일 부자(父子)가 참석하는 것을 뜻함. 8월 4일에는 지친 북한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탈수 현상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대북소식통은 전함
- 북한에서는 같은 ‘아리랑’ 공연이라도 김정일이 참석한 공연은 특별대우를 받음. 2000년 10월 방북했던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김정일이 관람한 아리랑에 김정일이 대만족하면서 참석자 전원은 큰 선물을 받은 바 있으며 연출자 등 간부진은 특별훈장을 받아 출세길이 열렸음.
-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이 함께 참석하는 ‘아리랑’ 공연이 성사됐더라면 참가자들은 역대 집단체조 참가자들보다 더 큰 선물



과 혼장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게 무산되면서 일부 학생들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함.

● ‘아리랑’공연 10월17일까지 연장(9/5, 미국의소리 방송)

- 북한이 최근 집단체조 ‘아리랑’의 올해 공연 기간을 10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5일 보도
- 미국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북한 전문 관광회사 ‘아시아태평양 여행사’의 월터 키츠 대표는 이 방송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정부 당국자가 지난 3일 전자우편을 보내 아리랑 공연 기간이 (다음달) 17일까지로 연장됐다”고 밝힘.
-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북한 전문 여행사 ‘고려관광’도 “북한이 아리랑 공연 기간을 연장해 이 기간 북한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모두 아리랑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
- 북한 당국은 애초 9월말 까지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8월 해외 여행사들에 아리랑 공연 기간을 10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차 통보한데 이어 다시 공연 기간을 1주일 연장하기로 했으며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관광객들을 더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VOA는 보도
- 올해 아리랑 공연 기간은 늘어났지만, 미국과 유럽 등의 관광객 수는 크게 줄었다고 VOA는 밝힘.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친선연환모임(9/4, 조선중앙통신)

-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창립 10주년 기념 친선연환모임이 3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 모임에는 국제태권도련맹 총재인 장웅 국제무도경기위원장,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인 룡와이맹 국제무도경기위원회 사무총장과 집행위원들,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인 황봉영 조선무술련맹 위원장 등이 참석

● 北옥류관에 철갑상어 요리 등장(9/3, 노동신문)

- 평양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이 철갑상어 수족관을 새로 설치하고 철갑상어 요리를 메뉴에 추가했다고 노동신문이 3일 보도, 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신창양어장을 시찰했을 때 주민들이 “하루빨리 그 맛을 볼 수 있게 옥류관에 철갑상어를 보내주며 살아있는 철갑상어를 보고 그 맛도 볼 수 있게 해줄 데 대하여”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보도
- 북한 매체들은 최근 김 위원장이 옥류관에서 메추리 요리를 내놓도록 지시했다고 전하는 등 그가 북한 주민들의 식생활을 비롯한 일상생활 향상에 관심이 많다는 이미지를 심는 데 주력



- **北, 가을철 약초·약용식물 관리 강조(8/30, 노동신문)**
 - 북한이 가을철 ‘약초재배 월간(9-10월)’을 맞아 각종 한약의 재료가 되는 약초와 수익성 나무의 재배와 채취, 철저한 관리를 독려, 노동신문은 ‘약초 자원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라는 글에서 “효능높은 약초, 약나무 열매들을 더 많이 마련하여 고려약(한약) 생산을 늘이는 것은 큰 의의를 가진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봄내, 여름내 정성껏 심고 애써 가꾸어온 약초, 약나무 열매들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라고 강조

- **평양서 8월 규모 3.8 지진 발생(8/26, 민주조선)**
 - 평양에서 8월 21일 밤 규모 3.8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었다고 민주조선이 8월 26일 보도, 신문은 이 지진이 당일 오후 11시 2분 2초께 평양시 중화군 금산리 일대에서 일어나 “시내 중심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지진의 크기는 “M(규모) 3.8정도로서 작은 지진에 속한다”고 밝힘. 그러나 신문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 여부는 전하지 않음.

- **북한도 TV 상업광고 시대 열려(8/20, 조선중앙TV)**
 - 북한에서도 TV광고 시대가 열리고 있음. 대동강 맥주를 소개하는 TV광고가 7월 2일 첫 전파를 탄 이후 개성고려인삼도 조선중앙TV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고, 북한의 대표적 음식점인 옥류관의 ‘메추리 요리’도 TV광고대열에 합류
 - 조선중앙TV는 30일 “평양냉면으로 소문난 옥류관에서 9월 1일부터 메추리 요리를 봉사하게 된다”며 메추리구이, 메추리쌀밥소꿉구이, 메추리고기완자탕 등의 메뉴를 소개함으로써 옥류관이 상품 출시를 앞두고 사전광고를 시행
 - 통일신보는 대동강 맥주가 TV를 통해 광고를 낸 뒤 맥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최근 소개

2. 대외정세

가. 유엔 안보리 제재관련

- **보즈워스 방한, 북핵 대응방안 논의(9/4,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핵 6자회담 참가국 순방의 일환으로 4일 오후 방한,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보즈워스 대표는 공항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중국을) 떠날 때 할 말을 했고 (한국을) 떠나기 전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은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숙소로 향했음.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5일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 및 만찬을 함께 하고 북핵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

● 유엔 北대사, 내가 편지 보냈다(9/4, 조선중앙통신)

- 신선호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관련해 “내가 직접 편지를 보냈다”고 답변, 신 대사는 3일 오후 뉴욕 맨해튼의 유엔본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변
- 이에 대해 9월 유엔안보리 순회의장국인 미국의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그런 서한의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를 통해 들었다”면서 “아직 편지를 받지는 못했다”고 언급, 그는 그러나 “이것이 편지가 발송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단지 우리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
- 앞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나라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북한은 최근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억류된 사건에 대해 유엔 제재위원회가 해명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이번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짐.

나. 북·미 관계

● 보즈워스, 北 핵무기화에 우려 표명(9/4, 연합뉴스)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북한이 우리나라 농축에 성공하고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 중국과의 북핵 문제 협의차 방중한 보즈워스 대표는 4일 오전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의 무기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전날 밤 소식을 들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분야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려가 된다”고 언급
-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만 이는 오직 6자회담의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
- 그는 3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4일 오전까지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장 및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개별 회동을 가짐. 그는 “중국 관리들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같이했고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회담(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언급하고 또 “우리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

다. 북·중 관계

● 北김영일, 방중 마치고 귀국(9/5, 연합)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4박5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 1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상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북중 관계와 양국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해 논의
- 아시아 담당으로 2003년 8월에 열린 1차 6자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영일 부상은 북중 수교 60년 기념행사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면서 6자회담 문제도 함께 다룬 것으로 알려짐.
- 외무성 대표단은 2일에는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지난 1991년 10월 방문했던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를 방문,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상이 장쑤(江蘇)성에 머물고 있다”면서 “곧 베이징으로 돌아온 뒤 이번 주말 귀국할 예정”이라고 언급

● 북·중 수교 기념화첩 발행(9/3, 조선중앙방송)

- 북한과 중국의 수교 60돌 기념화첩 ‘조(북)·중 친선은 세기를 이어’가 3일 발행됐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화첩 발행식에는 북측에서 강능수 문화상, 최경국 외국문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립원보 출판지도국 국장, 전영진 대외문화연락위원회 부위원장, 중국측에서 고수무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세계 지식출판사 대표단,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참가

● 中, 北역류 美여기자 주장 반박(9/3, 연합)

- 중국 정부는 북한에 역류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명이 자국 영토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유 대변인은 3일 두 여기자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당신들(언론)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답변
- 로라 링과 유나 리는 9월 1일 소속 방송사인 커런트 TV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이 북한 국경을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중국 쪽으로 나왔으나 뒤쫓아온 북한군 병사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밝혔음.

● 中, 동북아 긴장완화 기회 살려야(9/1, 연합)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동북아시아에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



국이 이 기회를 잘 포착해 국면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내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장 대변인은 지난달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의 방북 이후 추가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대답

-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우 부부장의 방북 이후 중국이 조만간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의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北 만수대창작사, 中國제예술전 참가(8/31, 연합)

- 북한 최고의 미술창작단체인 만수대창작사가 31일 제12회 베이징 국제예술전람회에 참가해 북한의 현대 미술을 중국 관객들에게 소개, 북한 인민예술가인 리창(67) 화백을 비롯해 공훈예술가 최명식, 1급예술가 전병진·최영철·김영일 등 창작사 소속 화가 5명은 27일부터 이날까지 열린 이번 미술전에서 북한의 색채를 담은 풍경화와 인물화 등 사실주의적인 작품 21점을 선보임.
- 특히 이번 대회에서 리창 화백의 대표작인 ‘몽금포의 해질무렵’이 북한의 전통 기법을 현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 창의상’을 수상

라. 북·일 관계

● 北매체, 日총선 정권교체 논평없이 보도 (8/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총선 결과 “정권이 자민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한다”며 일본의 정권교체 사실을 비교적 신속히 보도
- 통신은 “선거 결과 민주당이 국회 중의원의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자민당은 큰 참패를 당하였다”며 자민당의 ‘큰 참패’를 거론했으나 이러한 선거 결과에 대한 논평은 곁들이지 않음.

마. 북·러 관계

● 러시아, 6자회담 재개 北 압박할 것(9/4, 인테르팍스 통신)

- 러시아는 최근 우라늄 농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임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4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알렉시 보로답킨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보로답킨 차관은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뒤 “이 목표들은 6자회담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



바. 기타외교 관계

● 北-쿠바 외무장관 회담 개최(9/4, 조선중앙방송)

-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이 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이날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데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보도
- 회담에 앞서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도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을 만나 환담을 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하는 선물도 전달받음.
- 호세 몬타노 북한 주재 쿠바 대사는 이날 쿠바 정부대표단의 방북을 맞아 연회를 개최했으며 북측에서 박의춘 외무상, 김용진 교육상, 김태종 당 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형진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3. 대남정세

● 北, 예고 없이 댐 방류, 6명 실종·사망(9/6, 연합뉴스)

-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6시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진상리 임진교 부근에서 야영 중이던 7명이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실종됐음. 이중 2명은 해엄을 쳐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5명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또 인근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김대근(39) 씨도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11시 25분쯤 숨진 채로 발견됐음.
- 소방당국은 북한에서 댐을 방류해 임진강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수위는 평소 2.3m 정도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4.96m 정도까지 수위가 올라갔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음.

● 정부, 이산가족상봉 합의대로 진행(9/4, 연합뉴스)

- 정부는 4일 남북 간 진행 중인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합의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적인 내용의 편지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것과 관련, “가장 인도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가족상봉 행사는 이미 남북간에 합의한 내용”이라고 언급



● **남북경협사무소 7일부터 정상운영(9/4, 연합)**

- 남북은 2008년 '12.1조치'로 폐쇄됐던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를 오는 7일부터 정상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4일 밝힘.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개성 남북경협협회사무소를 9월 7부터 정상운영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은 어제 사무소에서 근무할 양측 근무자의 명단을 교환했다”고 밝힘.
- 우리 측에서는 유종렬 소장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와 민간기구 인사 13명이, 북측에서는 량기건 소장을 비롯한 6명이 경협협회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우리 측 인사 13명은 7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통일부는 소개

● **대북 지원단체 2곳 '의료협력' 방북(9/2, 연합)**

- 지난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대북 지원단체 2곳이 방북한 데 이어 이번주도 나눔인터내셔널 등 2곳이 평양을 방문, 나눔인터내셔널 관계자 3명은 2일부터 5일까지 평양 적십자병원 등을 둘러보고 의료협력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고, 순복음교회 산하 선교회 관계자 1명도 2일에서 8일까지 평양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신축중인 '조용기심장병원' 공사에 대한 기술감독을 할 예정
- 지난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뒤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물자 반출과 방북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가 이달 초 일부 해제돼 월드비전과 겨레의 숲을 비롯해 지금까지 수개 단체가 방북, 그러나 물자반출은 여전히 대부분 제한되고 있음.

● **경기도, 2년1개월만에 北 식량지원 재개(9/2, 연합)**

- 경기도가 2년1개월만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재개, 도(道)는 8월 초 민간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으로부터 “지난 5월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측이 식량 지원을 요청했는데, 공동 지원하자”는 제의를 받고 지난해 편성해 놓은 사업비 10억원을 전달했다고 밝힘.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경기도 지원금에 성금 등 자체 모금액을 더해 중국에서 알갱이 형태의 옥수수를 구입, 옥수수 4천200t을 1일 북한에 전달
- 이 민간단체는 이번에 전달한 물량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40억 원 상당의 옥수수를 북에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남북 군통신선 정상화, 모두 9회선(9/2, 연합)**

- 서해지구 군 통신선이 2일 정상 가동, 남북은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총 9회선의 군 통신선을 개설해 놓고 있음.



● **정부, 남북 열차운행, 물동량뵈가며 검토(9/2, 연합)**

- 정부는 경의선 남북 화물열차 운행 재개는 물동량 등을 뵈가며 검토 하겠다고 2일 밝힘.
-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북한 열차 운행사무소에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한 문의를 해 왔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물동량 등을 뵈가며 화물열차 운행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이에 따라 오늘 북측 열차 운행사무소에 화물열차 운행과 관련한 우리측 입장은 추후에 통보 하겠다는 통지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소개
- ‘물동량이 늘지 않으면 개통을 안 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물동량에 따라 ‘하겠다, 안 하겠다, 언제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 입장에서 일정 물동량이 유지돼야 하는 게 중요한 고려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답변

● **정찰 위해 고의로 월선, 北 시인 강요(9/2, 연합)**

-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예인됐던 강원도 고성군 거진항 선적 ‘800연안호’는 위성항법장치(GPS) 없이 조업에 나갔던 것으로 밝혀짐.
- 정부합동조사반은 1일 “연안호가 GPS를 장착하지 않은 채 오징어 조업을 나갔다가 나침반과 경험에 의존해 거진항으로 복귀하던 중 항로착오를 일으켜 북한 해역으로 월선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 연안호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시쯤 GPS 없이 출항해 거진항 동방 69마일(127.8km) 공해상에서 조업하다 어획량이 적어 돌아오던 중 항로 착오를 일으켰으며 이튿날인 7월 30일 오전 6시17분쯤 속초 어업정보통신국과 북한 경비정 출현 사실 등을 마지막으로 교신한 연안호는 오전 6시30분 거진항 동북방 22마일(40.7km), NLL 북방 8마일(14.8km) 해상에서 나포
- 선원들은 북한에 있는 동안 대북정찰 임무 등을 위해 고의로 월선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받은 것으로 나타남. 합조반은 “북측이 연안호의 GPS 미장착 경위에 대해 추궁하고 을지훈련 대비 정찰임무 등을 부여받고 고의로 월선했던 혐의를 시인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힘. 선원들은 영해 불법침입죄로 인민재판에 회부하겠다는 협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들은 예인 직후 이틀간은 연안호 내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원산항으로 이송돼 지난 19일까지 하루 30분~1시간 정도씩 조사를 받았음. 조사 과정에서 선원들은 정탐 부분 등은 강력히 부인했지만 월선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술서를 제출



● 9/1부터 개성 육로통행 정상화(9/1, 연합)

- 남북 육로통행 제한 등을 담은 북측의 '12.1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1일부터 경의선 육로통행이 정상화, 금강산 지구 출입경이 이뤄지는 동해선도 요일에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익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하루 통행횟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음.
- 통일부에 따르면 '12.1 조치' 이후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3차례 걸쳐 이뤄지던 하절기(4~9월) 경의선 육로 방북 횟수와 시간대가 이날부터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2차례로 증가하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3차례씩 이뤄지던 귀환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됨.
- 하루 3차례씩 이뤄지는 토요일 방북과 귀환도 각각 오전 8시30분~오후 5시,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7차례, 5차례로 늘어남.
- 또 각각 250명과 150대로 한정됐던 통행 시간대별 인원과 차량 대수 제한과 880명으로 묶어 놓은 개성공단 상시체류자격 소지자 수 제한도 전면적으로 풀림. 이와 함께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방북, 오후 3시 귀환으로 제한됐던 동해선 육로 통행도 이날부터는 요일과 상관없이 사업자들의 편익에 따라 시간대를 조율해 드나들 수 있게 됐지만 아직 하루 통행횟수는 결정되지 않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근본변화 없어..다자해결 필요”(9/6)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6일 북한이 최근 강·온 양면전술을 구사하고 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함. 북핵문제 협의차 방한한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측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있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견해와 관련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이 여기자를 석방한 것 등은 반가운 일이지만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국과 한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가 핵심이고 북핵 문제는 다자적 해결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말함.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대한 한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의 공조수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 할 준비도 돼있으나 오직 6자회담의 맥락 안에서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최근 일부 유화적으로 보이는 조치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핵 프로그램의 진행을 밝히는 등 근본적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제재와 대화의) 투트랙 어프로치를 계속해나가는데 한·미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함. 그는 이어 “양국은 5자가 북핵 문제를 푸는 틀로서 6자회담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5자간 긴밀한 공조로 안보리 제재를 이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과의 양자대화도 이런 맥락에서 고려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주안점을 두면서 관련국간 긴밀한 협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함.
- 보즈워스 대표는 또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보낸 편지에서 우라늄 농축 성공을 주장한 데 대해 “HEU(고농축 우라늄)이건 어떤 것이건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징후는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우리는 그 문제를 종합적(comprehensively)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힘.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6월13일 공지했던 여러 핵 활동들이 진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좋은 행동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결국 최근의 유화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이 당국자는 이어 “이런 상황이 흘러간다면 시간의 경과가 접촉을



정당화할 수도 있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다른 악재가 생겨난다면 지연될 수도 있다”며 “현 상황을 볼 때 숨을 조금 길게 보면 좋겠다”고 말해 북·미 대화가 가시화되려면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北 영변핵시설 재건 흔적 없어” <美ISIS>(9/5)

- 2007년 2·13 합의에 따른 불능화 조치로 불능화됐던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파괴된 냉각탑이 복구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의 핵군축 싱크탱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5일 밝힘. ISIS는 미국의 위성사진업체인 디지털글로브가 지난 8월10일 북한 영변 핵시설 일대를 위성 촬영한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 파괴된 냉각탑 시설 부근에서 어떠한 재건 활동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힘.
- 위성사진에 따르면 불능화된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은 여전히 파손된 상태였고, 이를 새롭게 다시 건설하기 위한 어떠한 자취도 사진에는 나타나지 않았음. 이번에 촬영된 위성사진으로 미뤄볼 때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 불능화된 핵시설 원상복구를 선언했던 북한이 불능화된 시설 중 하나인 원자로 시설을 복구하거나 폭파된 냉각탑을 다시 짓는 움직임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론적으로 원자로나 냉각탑을 복구하지 않더라도 불능화 조치에 따라 수조에 넣어 보관해오던 폐연료봉을 다시 꺼내 재처리 시설에 넣고 이를 가동,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들어가면 추가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음. 워싱턴의 북한문제 소식통은 이번에 촬영된 영변 핵시설 사진과 관련, “북한이 영변의 불능화 핵시설을 원상회복하겠다고 했을 때 원상회복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재처리 시설의 원상회복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영변의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함.
-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어제 발표했던 대로 폐연료봉 재처리가 마감단계이고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경우 재처리 시설은 다시 가동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함. 이 소식통은 특히 “플루토늄 핵무기 개발용인 영변 핵시설을 본격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우리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는 북한의 주장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러시아 “6자회담 재개 北 압박할 것”(9/5)

- 러시아는 최근 우리늄 농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 북한에 대해 6자회담에 임하도록 압박할 방침이라고 4일 인테르팍스 통신이



알렉시 보로답킨 러시아 외무차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함. 보로답킨 차관은 “러시아는 한반도 비핵화와 이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의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들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뒤 “이 목표들은 6자회담을 통해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함.

● 보즈워스, 北 핵무기화에 우려 표명(9/4)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4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성공하고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중국과의 북핵 문제 협의차 방중한 보즈워스 대표는 이날 오전 베이징 웨스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의 무기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 “전날 밤 소식을 들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 분야에 대한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려가 된다”고 말함.
- 보즈워스 대표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고 있지만 이는 오직 6자회담의 틀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함. 그는 3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4일 오전까지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 및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개별 회동을 가짐. 그는 “중국 관리들과 매우 좋은 회담을 했다”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같이했고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자회담(6자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함.
- 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보즈워스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에 도착하고 6일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를 만날 계획은 없다”면서 “아시아 순방 기간 한·중·일 3국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 앞으로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를 숙고할 것”이라고 말함.

● 北 “우라늄농축 성공, 플루토늄 무기화”(9/4)

- 북한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폐연료봉 재처리도 마무리 단계이고 추출한 플루토늄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함. 북한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의 이름으로 보낸 편지에서 또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적은 없다”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핵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함.
- 이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는 점과 비핵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동시에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를 동시 거론함으로써 ‘핵군축 회담’을 추구할 것



을 예고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됨. 북한의 유엔주재 대표는 편지에서 안보리의 제재위원회의 “해당 요청에 응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혀, 이 편지는 아랍에미리트(UAE)가 대 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을 압류·조사하는 것과 관련, 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이란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데 대한 응답으로 보임.

- 북한은 3일자 편지에서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미 명백히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며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함. 폐연료봉 재처리, 플루토늄의 무기화, 우라늄 농축시험은 북한이 이미 수개월전부터 대외 압박 카드로 거론했던 것이지만, 이번엔 이들 조치가 모두 마무리 단계라고 주장하는 게 그때와 다른 점임.
- 북한은 편지에서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잇단 대화제의에도 ‘제재 유지’ 입장을 고수하는 미국을 겨냥함. 이어 북한은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제재)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대응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은 이 편지에서 특히 남한의 나로호 발사를 거론, “유엔 안보리가 지난 8월25일에 진행된 남조선 위성발사를 침묵으로 대한 것처럼 자신들에 대해서도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 핵시험과 같은 우리의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함.

● 로그비노프 러’ 6자 차석대표 7일 방한(9/3)

- 러시아측 6자회담 차석대표를 맡고 있는 그리고리 로그비노프 러시아 외교부 본부대사가 7~9일 방한한다고 외교통상부가 3일 밝힘. 로그비노프 대사는 오는 8일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한-러시아간 협력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또 허 철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의 만나 북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협의하며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함.
- 로그비노프 대사는 아울러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함께 한·중·일 순방길에 오르는 미국의 성 김 6자회담 특사와도 만나 6자회담 현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특히 성 김 특사는 미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3~4일), 서울(4~6일) 방문에 이어



도쿄(6~8일)를 찾았다가 다시 서울에 들러 로그비노프 대사와 만날 예정으로, 이번 순방길에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 관계자와 모두 회동하게 됨.

● 권중락 “6자간 양자관계도 개선돼야”(9/2)

- 권중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2일 “6자회담 참가국들 간 양자관계도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함. 권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7차 동아시아포럼(EAF) 개회사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합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려면 역내 평화와 안정의 달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북핵 문제가 원만히 해결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동북아 안보 협력체제 논의를 촉진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함. 권 차관은 또 “경제통합 논의를 중심축으로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논의에 모멘텀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中 “동북아 긴장완화 기회 살려야”(9/1)

- 중국이 최근 조성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조짐의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섬.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동북아시아에 긴장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이 기회를 잘 포착해 국면을 변화시킴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내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장 대변인은 지난달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의 방북 이후 추가로 대북 특사를 파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이같이 대답함.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우 부부장의 방북 이후 중국이 조만간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의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파견하는 것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장 대변인은 “중국은 북핵 문제는 대화와 협상, 정치·외교적인 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강조함. 그는 우다웨이(武大偉) 부부장의 방북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방북 사실 확인 외에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았음. 우 부부장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박의춘 외무상,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나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설득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짐.



● <北 무기 압류 ‘늑장 공개’ 논란>(9/2)

-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수출용 무기를 선적한 북한 선박의 화물을 압류, 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미국의 보수언론과 안보관련 블로거들은 8월초에 화물 압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달 정도 지난 최근어야 이런 사실이 익명의 유엔관리 등을 통해 알려지게 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함. 이번 사건이 그간 밖으로 알려지지 않다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의 29일 첫 보도를 통해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오른 사실을 지적한 것.
-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일하는 보수성향의 언론인 클라우디아 로젯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유엔과 백악관은 북한이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려던 사실을 왜 쉬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도 유엔이나 백악관 어느 쪽으로부터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함. 로젯은 “이번 사건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제안하고,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 중이던 여기자들을 석방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던 시점과 겹친다”고 지적, 압류사실 공개지연과 여기자 석방문제가 연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함.
- 그는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분야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마이크 앞에 나와서 미국 유권자들 및 전 세계를 향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함. 일각에서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기자 석방임무를 수행하면서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번쯤 눈감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게 아니냐는 부풀려진 추측까지 나오고 있음.
- 이와 동시에 미국에 대해 최근 유화공세를 취해온 북한이 이란과 여전히 무기 뒷거래를 하는 이중성을 드러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음.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연초 도발적인 행동을 하다가 최근 여기자 석방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사절단 파견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일어난 이번 압류사건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의문을 품게 한다”고 말함.
- 아시아 타임스는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유화 제스처가 결국에는 유엔결의에 의거한 각국의 제재이행을 완화시켜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북한은 경제침체 속에서 절박한 외화벌이 수단인 무기수출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상유지는 하려 했던 것 같다”고 지적함. 북한자유연대 회원인 조슈아 스탠턴은 다른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조명함. 그는 “로켓탄(RPG)과 포탄을 이란에 실어 나른다는 것은 사우스다코타에 눈(雪)을 수송하는 일이나 마찬가지로, 이란 자체적으로 RPG를 포함해 대전차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함. 그는 이란이 이라크내 시아파 반군 또는 알카에다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 하에, 무기공급처로 둘러대기 가장 적당한 북한을 끌어들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 “北무기 남포항선적, 다론허 거쳐 이란행”(8/31)

- 아랍에미리트(UAE)가 북한의 대(對)이란 수출용 무기가 담긴 화물을 압류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화물 선적계약을 담당했던 이탈리아 회사는 이 화물이 북한 남포항에서 선적돼 중국 다론허(大連)항을 거쳐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WSJ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밀라노에 본사를 둔 이탈리아의 국제 화물 운송업체 오티(Otim)의 마리오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WSJ과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티가 수출업자로부터 10개의 컨테이너를 받아 남포항에서 중국의 다론허으로 운송했다고 확인함. 그는 자신의 회사가 다론허에서 컨테이너를 이란의 반다르 압바스로 향하는 화물선 ‘ANL-오스트레일리아’에 옮겨 실었다며 “컨테이너들은 처음 봉인된 것 그대로 다론허을 떠났다”고 말함.
- 카르니글리아 대표는 이어 다론허에 이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도착했을 때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내용물이 ‘석유 펌프 장치(석유 시추장비 부품)’라는 문서를 받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그는 이탈리아의 사생활 보호 법률과 직업윤리를 들어 이 화물을 보낸 수출업자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거부함.
- 한편, 북한의 무기를 싣고 가던 선박의 명의를 갖고 있는 호주의 해운회사는 호주 정부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지만 회사가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밝힘. ANL-오스트레일리아는 멜버른에 소재한 ANL 소속으로, ANL은 세계 3위의 컨테이너 회사인 프랑스의 CMA CGM의 호주 내 자회사임.
- 31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ANL의 크리스 슐츠 총괄매니저는 화물압류 소식이 보도되기 전부터 호주 정부의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회사가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진 않는다고 강조함. 호주 연방정부는 호주 회사 명의를 선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슐츠 매니저는 화물압류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한편 자사의 선박이 UAE에 억류됐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배가 예정대로 31일 서아프리카로 향했다고 덧붙였다. 호주 국립대의 돈 로스웰 국제법 교수는 ANL이 유엔 제재 결의 위반으로 호주 법원으로부터 100만 호주달러(미화 84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말함.

● <北선박 UAE 억류, 유엔 결의후 첫 제재>(8/29)

- 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의 무기를 압류한 것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후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번째 제재 조치 이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할 당시만 해도, 과연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겠느냐는 회의



적 시각이 많았던 터에 이번 UAE의 무기압류는 유엔 회원국들의 단호한 결의 이행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임. 대북 제재를 책임진 안보리 제재위원회는 그동안 다각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해 왔음.

- 이번 UAE의 무기 압류 조치는 실제 불법무기를 선적한 선박에 대해 검색을 실시해 불법 무기를 확인하고 이를 안보리에 통보, 결의 1874호의 의심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도 기국의 동의를 얻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즉각 안보리 제재위에 통보토록 규정한 조치를 그대로 이행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음.
- 안보리 제재위가 이 사안을 처음 UAE로부터 통보 받고 나서 UAE 정부에 서한을 보내 안보리의 제재 조치에 적극 협력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한 것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케 함. 유엔 외교관들은 이 사안이 현재 안보리 내에서 ‘극비’로 분류돼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음.
- 다만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한 파이낸셜 타임스는 “수주일 전에 북한 선박이 UAE에 의해 억류됐으며, 선박에는 금수 품목인 로켓 추진 폭탄 등이 선적돼 있었고, 이 무기들의 포장에는 ‘기계 부품’이라는 가짜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함. 그러나 유엔의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수주 전에 억류됐던 선박은 바하마 국적의 호주 선박이며 컨테이너에는 뇌관과 탄약, 여러 기종의 폭탄들이 선적돼 있었고, 해당 선박과 선원은 돌려보낸 것으로 안다고 전함.
- 향후 관건은 이번 사안이 어떻게 최종 정리될 것이냐임. 현재 UAE 측은 안보리 제재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 몇 주 동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안보리 제재위는 금주 초 이란과 북한에 이 사안을 통보하면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답변 시한은 보름으로 내달 10일 전까지 이들 국가로부터 답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엔 안팎에서는 “상세한 답변이 올 가능성은 별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외교 소식통은 “UAE 정부가 최종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안다”면서 “그때 압류 무기의 처리 방침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함.
- 통상적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불법 무기를 압류해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임.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UAE 정부가 제재위에 처리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유엔 소식통은 전함. 제재위는 선박 소유 회사와 관련 국가 등을 상대로 해당 선박이 북한 무기를 선적한 경위에 대해 나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회의 소집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나. 미·북 관계

● 美의원,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촉구(9/6)

- 미국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5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성과 플루토늄 무기화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대북 정책 실패에 따른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야만 한다”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려 놓는 것을 시작으로 북한 정권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밝힘.
- 그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의 확실한 단계에 도달했다고 시인한 것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포용과 양보는 북한의 핵무기프로그램 추구를 가속화시켰을 뿐”이라고 지적함. 또 그는 “대북제재 문제를 재점검하게 될 이달 유엔총회는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유엔이 과연 억제할 수 있느냐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책임있는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핵확산 및 미사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문타폰 유엔보고관 “北인권 상황 매우 나빠”(9/5)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4일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abysmal)’고 밝힘.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회람된 유엔 총회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2008~2009년 상반기의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negative)’으로 평가함.
-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북핵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들었음.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정권이 빈곤과 공포, 차별, 박해, 착취로부터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 항목을 일상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 축소로 원조단체의 도움을 받는 북한인의 수도 2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지적함.
- 그는 북한 정권에 ▲870만명에 달하는 빈곤층에게 식량 등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것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를 처벌하지 말 것 ▲공개 처형을 중지할 것 ▲국방예산을 사회 분야 예산으로 전용할 것 ▲민주적 절차를 도입할 것 등을 요구함. 그는 또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함.
- 문타폰 보고관은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



엔 산하 기관과 인권단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이번 보고서 작성함.

● 美 “北태도변화 고무적, 다자대화들은 고수”(9/1)

- 미국 국무부는 31일 북한의 미국인 여기자 및 연안호 선원 석방과 잇따른 남북 간 접촉 등 최근의 진전상황은 고무적이지만 북한과 다자대화틀 안에서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원칙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은 북한이 호전적인 발언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던 수개월 전의 분위기보다 더 나아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긴 하지만 (동북아 주요국가들이 참여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역적 해결 방안이 최선이라는 우리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말함.
- 켈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다자 틀안에서 지역적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제안은 6자 회담”이라고 부연함. 그는 또 북한이 제의한 북·미 직접대화과 관련, “우리는 그 지역(동북아)에서 우리의 파트너들과 관계를 단절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면서 “그것이 북한이 이러한 다자 대화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북한과 안보문제들에 대해 어떤 실질적인 논의도 할 용의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라고 말함.
- 이와 함께 켈리 대변인은 덩 체니 전 부통령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여기자 석방을 위한 방북을 큰 실책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 성격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의 방북은 여기자들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도적인 임무수행이었다”고 지적함.

다. 중·북 관계

● 김영일 北 부상 방중 마치고 귀국(9/5)

-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4박5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함.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4일 베이징에서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楊潔志<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을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보도함. 다이빙궈 국무위원과의 접견에는 최진수 중국주재 북한 대사와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석했으며, 다이빙궈 국무위원은 “중조(북) 두 나라 사이의 중조 친선의 해 개막식을 비롯한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해서 언급”했다고 방송은 전함.
- 또 양제츠 외교부장은 “올해는 중조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중조 친선의 해”라며 “두 나라 외교부문 사이에 교류와 협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방송들은 밝힘. 지난 1일 베이징에 도착한 김 부상



은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 외교부 관리들과 북·중 관계와 양국의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함. 아시아 담당으로 2003년 8월에 열린 1차 6자회담에서 북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김영일 부상은 북·중 수교 60년 기념행사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하면서 6자회담 문제도 함께 다룬 것으로 알려짐.

- 김 부상은 지난달 14일 베트남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의 대화 용의를 공식 표명해 주목을 받기도 함. 그러나 김 부상이 중국에 머물던 3~4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중국을 방문했으나 두 사람의 전격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음.

● “북·중 접경 지역 밀수 성행” <아사히>(9/4)

- 북한과 중국 접경지대에서 밀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전함. 이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정상적인 방법의 수출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임. 신문은 밀수 현장도 소개함.
- 중국 지린(吉林)성 조선족 자치지역의 창바이(長白)와 북한 혜산시 사이에 있는 압록강의 북한 쪽 한 지점에서 어느 날 새벽 중국 위안화가 든 자루가 던져졌고, 중국 측에서 한 남성이 이를 가져감. 이어 중국 측 남성은 상자 4개를 가져왔고, 북한 측에서도 한 남성이 중국 쪽으로 건너와 이들 상자를 가져갔다는 것임. 이 상자에는 한국 영화 DVD와 DVD 재생기가 들어 있었다고 신문은 전함. 이 중국산 재생기는 원화를 기준으로 3만원 가량에 구입해 북한 측에 7만5천원에 팔고 있었으며, 불법 복제한 DVD는 한 장 당 200원 가량에 사서 400원 가량에 판매하고 있었음.
- 밀수업을 하는 한 북한 여성(42)은 아사히 신문에 “많을 때는 하루 밤에 130만원 가량을 벌 때도 있다”고 말함. 신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한국 영화나 음악이 ‘퇴폐적’이란 이유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임. 그러나 최근 수년 사이 몰래 이를 감상하는 주민이 증가하는 등 ‘한류 붐’이 불고 있음. 미국의 한 회사가 지난 2007년 220명의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가 한국 등 외국의 DVD를 일상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여성은 수십 명의 대학생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고 있음. DVD 밀수입 이외에도 북한산 금 등 보석과 모피 등을 중국에 밀수출함. 이익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함. 하지만 이의 절반은 접경지역을 경비하는 북한의 군인이나 정부 간부에게 밀수 묵인용 뇌물이나 접대비로 씀. 밀수가 성업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당국이 세관 검사를 강화하기 때문임. 이전 보다 통관에 시간이 걸리는 것도 문제고 사실상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도 적지 않음.
- 지린성 투먼시의 한 무역업자에 따르면 주요 달리 공급원이었던 북한의 송이 수출, 그리고 일본제 중고차 등 고급품은 사실상 통관이



되지 않고 있음. 이 업자는 “이렇게 엄하게 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규 무역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밀수가 늘고 있다”고 함. 신문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북·중 접경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밀수 단속을 지시했다고 전함. 밀수업자뿐 아니라 뇌물을 받는 군인 등 단속요원도 대상임. 그러나 1천300km를 넘는 접경을 모두 감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식량이나 물품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경제를 밀수가 뒷받침하는 측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 묵인해 줄 수밖에 없다”(중국 현지 당국자)는 시각도 있음.

● 北 외무성대표단, 中 양저우 방문(9/3)

- 김영일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외무성 대표단이 1일 중국을 방문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중북 수교 60주년이자 양국 우호의 해로서 양국 외교부 간의 교류 및 중북 우호의 해 활동 계획에 따라 김 부상이 방중했다”고 말함.
- 방중 이틀째인 2일 장쑤(江蘇)성 양저우(揚州)를 방문했다고 중국 반관영통신인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6자회담 재개 논의와 관련, 방중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김영일 부상 일행은 이날 고 김일성 북한 주석이 지난 1991년 10월 방문했던 양저우를 찾아 김 주석의 행선지를 답사함.

라. 기타

● 中, 北역류 美여기자 주장 반박(9/3)

- 중국 정부는 북한에 역류됐다 풀려난 미국 여기자 2명이 자국 영토에서 북한 군인들에게 붙잡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함.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유 대변인은 3일 두 여기자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당신들(언론)이 설명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함. 로라 링과 유나 리는 지난 1일 소속 방송사인 커런트 TV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자신들이 북한 국경을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중국 쪽으로 나왔으나 뒤쫓아온 북한군 병사들에게 강제로 끌려갔다고 밝힘.

● 호주 “금지무기 선적 호주선박 사법처리”(8/30)

- 호주 연방정부는 북한제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가던중 아랍에미리트(UAE) 세관당국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호주 회사 명의의 선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사법처리하기로 함. 앤서니 알바니즈 연방정부 교통부장관은 30일 한 방송에 출연, “바하마 선적의 문제의 선박이 현재 UAE 세관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만일 법 위반 사실이 있으면 해당 회사에 대해 관련 사법당국이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호주 AAP통신이 전함.



● 박근혜, IAEA 사무차장과 북핵 논의(8/29)

-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로 유럽을 방문 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8일(현지시각)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올리 하이노넨 사무차장과 만나 북핵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박 전 대표는 하이노넨 사무차장으로부터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비롯해 지난 4월 이후 IAEA와 협력을 중단하고 사찰반을 철수시킨 이후 북한의 움직임 등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전해짐.
- 박 전 대표는 “북유럽의 핵감축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핵 불능화를 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돼야 불능화가 된 것으로 보느냐”고 말했다고 면담에 참석한 유정복 의원이 전함. 그는 또 “한국도 IAEA 창설 멤버로서 참여하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IAEA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함.
- 이에 대해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북유럽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핵과학자들) 다른 활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며 “북한의 경우 기초과학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하이노넨 사무차장은 또 “북한의 핵을 불능화하려면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핵관련 부품, 핵개발 노하우의 불능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게 모두 불능화가 돼야 핵포기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려주고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앞서 박 전 대표도 대북정책과 관련, ‘북·미수교부터 핵 불포기시 비참한 미래까지 모든 것을 밥상 위에 펼쳐놓고 북한이 선택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밥상론’을 언급한 바 있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일 관계

●李대통령 “한·일관계, 새 시대 열자”(8/31)

-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일본 총선에서 역사적 승리를 이끌어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인사를 전함.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한국 국민도 이번 선거로 하토야마 대표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정함.
- 특히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대표가) ‘우애’의 정치철학을 말한 바 있는데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함. 이에 하토야마 대표는 “외국정



상 가운데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축하전화를 주셨다”면서 감사의 뜻을 밝힘. 하토야마 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제가 반드시 발전적 한·일관계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정상이기 때문”이라며 “우애의 정신을 갖고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함.

-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역사문제는 아주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지만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면서 미래를 향해 손잡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6월 하토야마 대표와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점을 느꼈다”고 말함. 대북정책에 언급, 이 대통령은 “남북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게 대전제”라면서 “핵포기 없이는 어떠한 근본적 협력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함.
- 또 “한·일간, 한·미간 또 3국이 긴밀하게 협조하면 이 문제 해결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으며, 하토야마 대표도 “북핵문제와 납치 등 현안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일본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함.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5분부터 약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향후 편리한 시기에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기로 함.

● <정치권-日 민주 인맥 관심>(8/31)

- 일본 민주당이 54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룸에 따라 한국 정치권의 ‘민주당 인맥’이 주목받고 있음. 민주당이 아시아 중심의 ‘신(新)외교’를 내세움으로써 한·일 관계의 일정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한국 정치권과 일본의 새 집권세력간 인적 네트워크가 부각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31일 “그동안 일본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일본 민주당 내 지한파(知韓派) 인사가 적지 않은 만큼 네트워크 구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힘.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를 비롯해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 나오토(菅直人),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등 이른바 민주당의 ‘실력자 4인’은 모두 한국 정치권과 연이 닿아 있음. 하토야마 대표와 간 대표대행은 한·일의원연맹 일본 측 고문이며, 민주당의 실력자인 오자와 대표대행은 한국 내 지인과 교분이 두텁고, 오카다 간사장 역시 한국 정치권과 두루 교감해 왔다고 함.
- 특히 차기 총리로 확실시되는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2000년 이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각 정당 대표들과 만나 교과서 문제, 북핵 문제 등 민감한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하토야마 대표는 지난 2003년 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었음. 이들과 대권 예비주자들과도 교류도 눈길을 끄.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지난 2004년 8월 대표 재직 시 하토야마 대표를 만났으며, 지난 6월에도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대표의 요청으로 면담, 양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었음.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지난 2000년 하토야마 대표와 첫 만남을 가진데 이어 최근까지 세 차례 회동함. 무엇보다 53년생 동갑내기로 각별한 관계를 맺어 온 오카다 간사장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정동영 후보의 유세 현장을 찾아 격려하기도 했다는 후문임.

- 또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권철현 주일대사, 민주당 문희상, 송영길, 이낙연 의원 등도 한·일의원연맹 활동 등을 기반으로 일본 민주당과 인맥을 구축해온 ‘일본통’임. 문희상 의원은 17대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아 일본 민주당 의원들과 폭넓은 교류를 가져왔고, 송영길 의원은 한·일의원연맹 산하 21세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일본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과 친분을 유지해옴.
- 현재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이낙연 의원과 간사장 대리인 전여옥 의원은 과거 도쿄특파원 시절부터 민주당측 인사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음. 이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각 당의 ‘일본 전문가’임. 기자 시절 이낙연 의원은 하토야마 대표와, 전여옥 의원은 오자와 대표대행과 각각 인터뷰를 하기도 함. 한·일의원연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맹의 일본측 회장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9월 중순 이후 일본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나. 미·일 관계

● “미·일, 北비핵화 공조해 나갈것” <美관리>(9/3)

- 케빈 마허 미국 국무부 일본과장은 2일 일본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함. 마허 과장은 이날 미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서 “선거후 여론조사에서 일본 유권자들 가운데 외교문제를 보고 투표했다는 대답이 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권교체 이후에도 일본의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라며 이같이 내다봄.
- 오키나와(沖縄) 총영사를 지낸 마허 과장은 또 주일 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를 미국령인 괌으로 옮기기로 한 결정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그 약속은 미국과 일본 국가간에 맺어진 것이지, 미국과 자민당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함. 미국과 일본은 조지 부시 정권 말기에 오키나와 도심의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를 폐쇄해 오키나와 외곽으로 이전하고, 해병원정대 등 일부는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이던 일본 민주당은 미군기지를 오키나와 이외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주장해 왔음.

● 키팅 “주일미군 현수준 유지 확신”(9/3)

-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2일 최근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 정부가 미·일 동맹관계를 재평가하겠다고 선언했지



만 군사동맹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힘.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키팅 사령관은 이날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군사 동반관계에서 어떤 중대한 개정작업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주일 미군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한다”고 말함.

- 미국은 2차대전 이후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일본에 5만여명의 미군을 주둔시켜왔으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를 거느린 미 7함대가 도쿄(東京) 남쪽에 있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横須賀)항에 기지를 두고 있음. 요코스카항은 미국 밖에 있는 유일한 미 항공모함의 모항이기도 함.
- 그는 “우리는 일본 항구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핵항모를 포함해 일본 부근에 대규모 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다”고 말함. 이와 함께 키팅 사령관은 지난 주말 2008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재개된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군사대화와 관련, 공식적인 군사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그는 양국 군사대화는 중국이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중국 무기체제의 의도를 파악해 위협을 배제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하지만 키팅 사령관은 중국의 일부 무기와 군사력은 지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중국 군사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이와 관련, 그는 “중국이 그들의 군사적인 역량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우리는 매우 주시할 것”이라고 말함. 중국의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함대 프로그램에 대해, 키팅 사령관은 구체적인 정보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함. 다만 그는 “중국은 현재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 누구를 위협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군사대화 재개를 중요한 진전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 하토야마-오바마, 3일 새벽 전화회담(9/3)

-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3일 새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선거 후 처음으로 전화회담을 하고 양국 동맹관계를 견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하토야마 대표는 “건설적인 미래지향의 일-미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경제분야에서도 미래지향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고 말함.
-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전화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민주당의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해 축하의 뜻을 전했으며 하토야마 대표는 “일-미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화답함. 하토야마 대표는 “(이달 하순에) 미국 방문 될 때 만나고 싶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 핵 폐기문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오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함. 그는 또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주



적 방식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대통령의 경우와 같다”며 “변화에는 용기가 필요한데 대통령과 미국민은 용기를 발휘했다”고 말함.

- 이에 앞서 하토야마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한 월간지에 기고한 논문을 두고 미국 내에서 그가 미-일 동맹관계가 약화시킬 수 있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하토야마 대표는 이달 하순 미국 방문에서 이런 우려를 해소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임. 문제의 논문에는 ‘금융위기는 미국식의 시장경제를 이상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의 결과다’, ‘이라크 전쟁의 실패와 금융위기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리즘의 종언을 시사한다.’ 등의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미·일 핵 밀약 지금도 유효”(9/2)

- 핵 탑재 미국 함선의 일본 영해 통과 및 기항을 묵인한 미·일 간 ‘핵 밀약’과 관련, 일본 총리실에서 외교 정책 입안을 담당했던 전직 정부 고위 관리가 이 밀약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본이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이상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그는 또 “(미·일 간에 핵 밀약을) 폐기한 적이 없다. 공개해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해, 밀약을 기록한 각종 문서가 현 시점에서 외교상 유효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이런 증언은 핵 밀약의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는 것인 동시에, 역대 정권이 미국 핵 함선 및 항공기의 일본 기항, 통과를 묵인해 온 배경에는 핵우산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음을 명확히 해 주는 내용임. 핵 밀약이 미·일 간 현재도 유효하다는 이 고위 관리의 발언에 따라 밀약의 전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힌 차기 민주당 정권의 대미 외교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 “美, 日과 군사기지이전 재협상 의사없어”(9/1)

- 미국 국무부는 31일 일본의 민주당 새 정부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재협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힘.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의 보수 자민당 정권과 수개월 전에 최종 타결한 오키나와(沖縄)현 후텐마(普天間)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재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켈리 대변인은 “미국은 일본 정부와 미군기지 시설 재배치와 괌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재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잘라 말함.
- 미국과 일본은 조지 부시 전 행정부와 자민당 정권 하에서 후텐마 미군기지의 시설을 해체해 오키나와의 한적한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나 전날 총선에서 승리한 일본 민주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후텐마 미군기지를 일본 밖으로 완전히 철수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 일본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일본 내 미군 재배치와 일본의 미군기



지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선거공약을 제시했으며 미국과 더 동등한 동맹관계를 추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음. 미국은 일본 정부가 28억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오키나와에서 해병대원 8천명과 그들의 가족 9천여명을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 배치하기로 합의함.

- 켈리 대변인은 또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에서 수행하고 있는 미군 주도 다국적군 함대에 대한 급유지원 활동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일본은 재급유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번영은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강조함. 하지만 그는 “그러한 노력에 그들이 어떻게 최선의 기여를 할지는 각국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이와 함께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하에서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 등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개의치 않는다고 밝힘. 기브스 대변인은 “미·일 양국은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는 강력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왔다”며 이번 일본의 정권교체로 미·일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함.
- 그는 또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특히 북한의 행동 등 많은 지역적 문제를 논의해옴. 그러한 논의는 일본이 지역적인 유대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우리는 명백히 그런(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상황을 개의치 않는다”고 덧붙였음.

다. 미·러 관계

● 美-러, 전략핵무기감축 협상 21일 재개(9/5)

-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이달 21일 제네바에서 만나 전략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논의함. 미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 관계자는 전략핵무기감축 협상 제6차 회의를 21일에 진행할 것이라고 4일 밝힘. 러시아 측은 3일 협상에서 러시아와 미국이 이견을 좁혔다고 설명,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러시아 측은 양국 대표단의 협상 결과는 이달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 때 양국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함. 양국은 START-1 협정의 시한 만료일인 올해 12월5일까지 후속 협정을 마무리할 계획임.

라. 중·일 관계

● 우다웨이 7일 방일 민주당과 대북 협의(9/4)

- 북핵 6자회담 의장을 맡고 있는 중국의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副)부장이 오는 7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산



케이 신문이 4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우 부부장은 이번 방일 기간 지난달 30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해 차기 정부를 출범시키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6자회담의 향방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임.

● 中, 日 새 정권에 中·日 관계 발전 촉구(9/1)

- 중국은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의 민주당 정권에 대해 협력을 강화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1일 말함.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일본의 중의원 선거 결과를 주의깊게 지켜봤다”면서 “이웃이자 아시아의 중요한 국가인 중·일 양국은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함께 촉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함.
- 중국 정부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 총선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그러나 장 대변인은 총리 취임을 앞두고 있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별한 축하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았음. 장 대변인은 일본의 새 정권이 군사력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웃 국가들이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일본이 평화·발전의 길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의 이익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함.

마. 일·러 관계

● 하토야마 “러-일, 지도자간 신뢰가 중요”(9/4)

- 일본의 차기 총리로 취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대표는 3일 미하일 벨리 주일 러시아 대사와 만나 일·러 양국 지도자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영토문제를 해결하는데 관건이라고 강조함.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벨리 대사를 접견한 뒤 기자들에게 “영토 문제와 같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 사이에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면서 신뢰 구축을 위해 자신도 노력할 것임을 덧붙였음. 그는 “다행히도 하토야마라는 이름이 러시아에서 잘 알려져 있어 두 나라간의 문제를 푸는데 있어 진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하토야마 대표의 조부인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는 지난 1956년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당시 소련을 방문해 일-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전쟁상태를 종결, 국교를 수립한 바 있으며, 하토야마 대표 자신도 일본내 비영리 단체인 일·러협회를 주도하고 있음.



바. 기타

● 日, 외무 오카다, 국가전략상 간 내정(9/5)

- 일본 차기내각의 핵심 요직인 외무상으로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56) 간사장, 신설될 국가전략국 담당상에는 간 나오토(菅直人.62) 대표대행이 내정됨. 또 고시이시 아즈마(興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은 유임이 결정됐으며, 재무상에는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77) 최고고문이 유력함.
- 하토야마 대표는 이와함께 향후 국회대책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등 당 인사와 운영을 오자와 간사장에게 일임함. 하토야마 대표는 오자와 씨와 회동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일은 내가 맡고, 오자와 씨에게는 당무를 확실히 챙기도록 했다”고 밝혀 내각은 차기 총리인 하토야마 대표 본인이 책임지고 운영하되 당은 오자와씨에게 일임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함.
- 부총리급의 국가전략국 담당상에 내정된 간 대표대행은 하토야마 차기총리에 이어 내각의 2인자로, 과거 2차례 당 대표를 역임한 민주당의 간판 중 한 명임. 간 차기 국가전략담당상은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을 정하며 관료 개혁을 주도하게 됨. 앞서 하토야마 대표는 내각 대변인과 국회대책을 담당할 관방장관에 최측근인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대표 비서실장을 내정함.

● 中 두만강 개발 탄력받는다(9/4)

- 중국 정부가 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을 연결하는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을 승인, 연변(延邊) 조선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두만강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됨. 중국 국무원이 지난달 30일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을 심의, 승인했다고 연변일보가 4일 보도함.
- 창지투 개발 사업은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 3만㎡를 개발, 동북아 물류의 전진 기지로 삼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음. 북한의 나진·선봉항을 이용, 두만강을 통한 동해 항로를 개척해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의 교역을 확대함으로써 중국 동북지방의 물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임.
- 지린성도 두만강 개발을 바짝 서두르고 있음. 100억 위안(1조8천억원)을 투입, 두만강 일대를 개발키로 하고 지난달 이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할 경제기술합작국과 두만강지구개발관공실을 신설함. 북한과 러시아 접경 지역인 훈춘(琿春)에 한국과 일본, 홍콩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자 유치에 나섬. 훈춘에는 2016년까지 100억 위안이 투입돼 관광과 국제교육 시설, 생산단지 등이 들어서는 동북아 변경무역센터도 건설됨.
- 훈춘에서 출발하는 중-러 철도가 올 연말 개통되는 데 이어 훈춘-투먼 고속도로가 내년에 완공되고 지린-훈춘 간 고속도로도 곧 착공되는 등 교통망 확충도 잇따르고 있음. 창지투 선도구 개발사업



은, 동북지방의 노후 산업기지를 첨단 산업기지로 탈바꿈시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중국 정부의 동북진흥 정책의 일환임.

-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동북진흥책 추진에 강한 의욕을 보여옴. 국무원은 지난 7월 다롄(大連)을 핵으로 단둥(丹東)과 잉커우(營口) 등 랴오닝(遼寧)성의 좌우 해안도시를 연결, 동북아 경제 허브로 육성하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함.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랴오닝과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 3성을 현대화 산업 기지로 전환, 중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동북지방 노후산업기지 진흥에 관한 계획’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에 창지투 선도구 개발 사업도 승인함.

● “中, 美-濠 합동군사훈련 고려”(9/4)

- 중국 정부는 호주와 미국이 공동으로 추진중인 3개국 합동군사훈련 참여 제의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장 천사이 호주주재 중국대사는 3일 캔버라에서 열린 호주국제문제연구소(AIIA) 주최 세미나에 참석, “중국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3개국 합동군사훈련 참여 제의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가 4일 보도함.
- 이에 앞서 티머시 키팅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앵거스 휴스턴 호주 방위군사령관(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일 시드니에서 만나 양국이 개별적으로 중국 국방부 책임자와 만나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합동군사훈련을 갖고 3개국 군사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함.
- 장 대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이끌어내는 조치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중국 정부가 연구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라며 “각국은 현안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공고하다”고 강조함. 그는 2007년 호주 및 뉴질랜드와 인도적 차원의 구조활동을 위한 해군합동군사훈련을 가진 바 있다고 상기시킴.
- 호주의 국제문제연구소 로위연구소의 국제안보담당 애널리스트 로리 메드켈프는 “호주와 미국의 중국에 대한 3개국 합동군사훈련 참여 제의는 올바르다”며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중국이 군비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올해초 시작됐어야 한다”고 지적함. 중국인민대 국제문제 전공의 시인홍 교수는 “3개국 합동군사훈련 제의는 장기적인 상호 신뢰 확보 및 전략적 안정을 위해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함.

● “하토야마, 이달 하순 한·미·중·러와 회담”(9/4)

- 일본의 8·30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이달 하순 유엔총회 등에 참석해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이 4일 전함.

● 日 민주당 간사장에 오자와(9/4)

-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는 3일 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대표를 간사장에 기용키로 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전함. 하토야마 대표는 이날 당 본부에서 오자와 대표를 만나 간사장 직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며 오자와 대표대행은 이를 수락함. 오자와 대표대행은 “하토야마 대표로부터 당의 간사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위해 당인으로서 대표의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힘.
- 당의 실세인 오자와 대표대행이 간사장 직을 수락함에 따라 향후 민주당 정권은 내각은 하토야마, 당은 오자와 체제가 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간사장을 맡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는 관방장관 등 내각의 요직을 맡을 것으로 전해짐.

● 中, 국경절 열병식서 신형 핵미사일 공개(9/3)

- 중국이 오는 10월1일 열리는 건국 60주년 국경절 열병식에서 핵탄재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5개를 공개함.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일 익명을 요구하는 인민해방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또 재래식 크루즈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도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함.
- 인민해방군 전략미사일방위부 소속인 이 소식통은 “이 미사일들은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하고 제조한 것이며 이전에는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없는 무기들”이라고 말함. 그는 “이들 무기는 2세대 미사일로 이미 군 일선에 배급됐으며 작전 준비도 마친 상태”라고 말했으나 모델명이나 수량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를 거부함. 중국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은 미국 등 외국의 우려의 대상이었음.
- 미국 랜드연구소는 지난 8월 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양이나 질 모든 측면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방위능력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함. 중국은 지난 2007년 위성 요격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했으며 올해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중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역지를 위한 것이지만 핵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말함.

● 베트남, 유엔에 200해리 초과 대륙붕 보고서 제출(9/3)

- 베트남이 남중국해 북부 자국 수역을 초과하는 대륙붕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 중국과 또 다른 외교 마찰이 예상됨. 일간신문 탕니엔은 3일 외교부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이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24차 전체회의에서 남중국해 북부 자국 수역을 초과하는 200해리



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말레이시아와 공동 제출했다고 보도함.

- 대표단은 그러나 이 보고서가 기존의 해양 경계나 파라셀(西沙)군도 및 스프래틀리(南沙)군도 등 영토 및 해양분쟁도서 등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베트남은 두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오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어옴. 대표단은 또 남중국해와 관련한 모든 불화를 국제법에 입각한 평화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강조한 뒤, 유엔이 베트남의 이번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앞서 베트남은 지난 5월 6일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한데 다음날에는 단독 제안서를 제출함. 이에 대해 중국은 유엔주재 중국대표부를 통해 이에 즉각 반발하는 한편, 외교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의 제안서 제출은 중국 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주장함. 중국은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한 별도의 의견서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제출한 경계 획정에 관한 제안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범하고 유엔해양법협약과 CLCS의 규정도 위반했다”고 반발함.

● 日 오카다 “21세기는 아시아 시대”(9/2)

- 일본의 8·30 총선에서 압승해 정권 인수를 앞둔 민주당의 오카다가쓰야(岡田克也) 간사장은 2일 “중국을 비롯, 아시아의 존재감은 앞으로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밝힘. 그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중국 건국 6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미국이나 아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는 양자택일은 성과없는 논쟁”이라며 “민주당은 전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왔다”고 말함.
- 오카다 간사장은 “정권을 떠맡아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으로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겠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생각 아래 윈-윈 관계를 맺고 싶다”며 “장래에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시야에 두고, 지구온난화와 환경, 에너지 문제 등에 있어서 협력하면서 세계를 이끄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함.

● “日 ‘위안부’ 유엔 상정 막으려 美에 압박”(9/2)

- 일본은 한반도 강점 당시 위안부를 강제동원한 데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되는 것을 막으려고 미국 워싱턴 정가에 압박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국 DMZ 평화포럼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하고자 방한한 에니 팔레오마베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환경소위원회장은 2일 심포지엄 참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안부 결의안’은 유엔에 상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한국 여성을 비롯한 20만명이 넘는 아시아 여성이 노리개로



국회법, 내각설치법, 국가행정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음.

● 日 16일 하토야마 총리 선출…연립협의 본격화(9/1)

- 일본 정부와 여야는 1일 차기 총리를 선출할 특별국회를 오는 16일부터 4일간 개최하기로 합의함. 이에 따라 국회는 16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를 열고 8:30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대표를 차기 총리로 선출함. 앞서 하토야마 총리는 1일 국민신당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국민신당 대표와 만나, 사민당을 포함한 3당 연립정권 수립을 위한 협의를 함.
- 두 사람은 협의에서 연립정권 출범 시 여당 간 정책조정을 담당할 협의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음. 민주당은 2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내각에 정권 인수 협의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임. 앞서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穂) 사민당 당수는 가메이 대표와 만나 연립정권 출범 시 양당의 정책을 반영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 과정에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 등 3당은 2일 정책 책임자들이 회동을 갖고 연립정권 협의에 공식 착수할 방침임. 하토야마 대표는 총리 취임 이후 곧바로 조각 및 당직 인사에 나설 방침임. 그는 이르면 16일 사민당, 국민신당과 연립정권을 출범시킬 계획임.
- 가메이 대표는 하토야마 대표와의 회담에서 “국민신당, 사민당 등 양당의 입장을 확실히 반영할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함. 이에 대해 하토야마 대표도 긍정적으로 답함. 하지만, 하토야마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라는 이원적 결정 방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며 “연립을 하는 이상,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싶다”고 강조, 연립정권 내에서 3당 협의기관의 권한을 제한할 방침임을 강조함.
- 이에 대해 사민당은 3당 협의기관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 이어서 앞으로 연립협의에서 이 기관의 위상이 최대 초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사민당은 이날 당 본부에서 상임간사회의를 열고 연립정권 참가 방침을 확인함. 사민당은 2일 전국 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정식 결정할 계획임. 3당은 연립정권 협의 과정에서 소비세 동결, 우정(郵政)민영화 재고 등 총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동 공약은 물론 3당 간 입장 차가 큰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임. 민주당은 양당에 당 대표급의 입각도 요청한다는 방침이어서 각 당에 배분하는 각료직의 내용도 초점이 될 전망이다.

● 일본-스위스 자유무역협정 발효(9/1)

- 지난 2월 체결된 일본과 스위스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발효됐다고 스위스국제방송이 보도함. 양자 간 FTA는 일본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외의 국가와 처음 맺은 FTA이고, 스위스의 입장에서는 지난 1972년 유럽공동체(EC)와 맺은 FTA 이후 가



장 경제적 효과가 큰 협정으로 평가받았음.

- FTA를 통해 스위스는 화학, 제약, 시계 산업과 치즈, 육류, 초콜릿 등 농산물 수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일본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자, 기계 등 공산품과 사케 등 소비재의 스위스 내 판매조건 완화를 기대하고 있음. 스위스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교역 파트너십을 통해 지난해 전년 대비 4.8% 성장한 65억6천만 달러의 대일 수출을 기록했고, 일본은 18.2% 증가한 38억8천만 달러를 스위스에 수출함.

● <濠노동당 위안부 결의안 왜 반대했나>(9/1)

- 지난달 19일에 호주 상원에 재상정됐던 ‘위안부 결의안’이 집권당인 노동당의 반대로 부결되자 동포사회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음. 특히 노동당의 반대는 야당시절 ‘전원 찬성’에서 집권 이후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이 결의안은 호주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해 위안부 유린에 따른 전적인 책임 인정과 범죄행위에 대한 공식사과, 피해자나 직계가족에 대한 보상, 위안부에 대한 학교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결의안은 녹색당 헨슨-영 의원 발의로 상정돼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37의 압도적인 표차(기권 32표)로 부결됨. 찬성표는 녹색당 의원 5명과 가족제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 던진 반면 노동당 20명, 자유당 15명, 국민당 2명이 반대함. 노동당 12명과 자유당 17명, 국민당 2명, 지방자유당 1명은 기권을 함.
- 노동당은 일본 측의 1951년 평화조약과 1993년 당시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 등 하워드 정부가 거론했던 반대이유에다 민간인들의 국가상대 제소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추가해 ‘적극 반대’로 나선. 1일 인터넷매체인 ‘호주온라인뉴스’는 “그동안 존 하워드 전 총리의 인권문제 처리방식에 비판의 날을 세웠던 노동당이 집권 후 인권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원칙도 없이 정치적 이해와 실용주의적 판단에 따라 ‘대변절’하는 촌극을 연출했다”고 비난함.
- 호주한국신문 김인구 편집장은 “수정안을 낼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일본 선거가 끝난 9월에 발의를 했어야 하는데 너무 성급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아무튼 노동당이 야당일 때와는 달리 지나치게 일본을 의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그는 이어 “일본의 민주당 의원이 노동당 의원에게 8월 말 선거에서 승리하면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노동당이 향후 양국 관계를 고려해 ‘반대’를 한 것 같다”고 덧붙였음.
- 호주 상원에 위안부 결의안이 처음 상정된 것은 2006년 8월 9일 민주당 스토틀 데스포야 의원에 의해 이뤄짐. 당시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 또는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은 표결에서 부결됨. 녹



색당 케리 네틀 의원은 2007년 2월 28일 호주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 조건 없는 공식사과와 배상시스템 확립, 학교의 올바른 역사교육을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해 재상정함. 이 결의안은 당시 노동당과 민주당, 가족제일당 등 야당이 모두 합세해 찬성했지만 여당(자유-국민당 연합)의 반대에 부딪혀 또 좌절됨.

- 연방선거를 앞둔 2007년 9월 19일에는 노동당 페니 워그 의원(현 기후변화장관)의 주도로 민주당 테스포야 의원과 녹색당 네틀 의원 등 여성의원 3인이 내용이 비슷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찬성 34표, 반대 35표로 역시 부결됨. 워그 의원은 당시 “결의안 통과를 위해 한인사회가 자유당 의원 설득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함. 당시 자유당은 “일본이 1930년대와 1940년대 행위를 인정하고 속죄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해온 조치들을 치하하며 위안부 문제 등 자국의 전(全) 역사를 인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한다”는 내용의 극히 파행적인 결의안을 상정해 물의를 빚었음. 다시 민주당은 수정안을 냈지만 또 부결됐고, 이후 노동당은 자유당의 ‘물타기’ 결의안을 지지,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선회함.

● 베트남, 남부대륙붕 방어전담 해군 발족(9/1)

- 베트남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중국, 필리핀 등 관련국들과 외교적 마찰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남부 대륙붕 해역 방어를 전담하는 해군 특별전대를 발족시킴. 베트남 인터넷신문 베트남넷은 1일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29일자로 국방부가 특별전대(제2해역사)를 발족했다고 보도함.
- 제2 해역사는 베트남이 원유를 채취하는 주 해역인 남부 빙 투언 성에서 박류 성에 이르는 해역 관할과 방어를 전담하며, 300km 이상되는 베트남 남부 대륙붕 해역에 대한 주권 확보 임무도 담당하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함. 제2 해역사의 본부는 남부 동나이 성의 년짜(Nhan Trach)에 위치하며, 사령관은 응웬 반 투엔 대령이 임명됨.
- 앞서 베트남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와 공동으로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200해리를 초과하는 대륙붕에 관한 경계 획정 제안서를 제출한 데 이어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옴. 이에 대해 중국은 남중국해 파라셀(西沙)군도와 스프래틀리(南沙)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이곳에서 어로활동을 벌인 베트남 어선을 영해 침입 등의 혐의로 나포함.
- 베트남도 러시아로부터 ‘대양의 블랙홀’로 알려진 킬로급 636형 잠수함 6척을 발주한 데 이어 12대의 최신예 수호이30MK2(SU-30MK2)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중국에 비해 취약한 해·공군력 증강에 주력해오고 있음.



● <中, 달라이 라마 대만방문에 심기 불편>(9/1)

- 중국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대만방문에 대해 양안관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강력한 조치를 자제하면서도 여러모로 불편한 심기를 노출하고 있음.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 이틀째인 31일 양안관계에 관련한 각종 행사를 취소했고 중국 언론들은 달라이 라마의 대만 방문에 반대하는 대만인들의 시위를 집중 보도함. 중국의 대만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원대만사무관공실의 사령탑인 왕이(王毅)주임은 당초 이날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열린 대만주간 행사에 참가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함.
- 중국은 또 이날 예정대로 역사적인 양안간 항공편 정규노선을 출범시켰으나 중국내 여러공항에선 아무런 환영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음.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양안의 16개 항공사에 정기편 운항 허가증을 발급함에 따라 이날부터 주당 108편이던 상설전세기 운항이 270편의 정규노선으로 확대됨. 대만의 양안관련 단체인 타이베이팅아오지진회(臺北聽奧基金會)는 오는 5일 타이베이에서 큰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대표단의 불참 통보 때문에 행사가 무산됨.
- 또 대만 타이중(臺中)과 푸젠(福建)성 샤먼(廈門)간 여객선 첫 취항을 취해 오는 6일 탕중과 샤먼에서 열릴 예정이던 환영행사들도 모두 취소됨. 이밖에 중국인민은행 쑤닝(蘇寧) 부행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의 대만방문 계획이 무기 연기됐고, 중국이동통신이 추진하던 대만과의 합작사업도 일단 보류됨. 중국 언론매체들은 대만 언론들을 인용, 대만의 10여개 정치 단체들과 주민들이 달라이 라마의 대만방문을 반대하는 시위를 거세게 벌였다고 초점을 맞춤.
- 대만 역시 마잉주(馬英九) 총통을 비롯해 류자오쉬안(劉兆玄) 행정원장,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 우보승(吳伯雄) 국민당 주석 등 주요 인사들이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이 라마의 방문은 야당 차원의 행위임을 강조하며 양안관계에 손상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시함. 대만 여당 국민당은 또 달라이 라마의 대만방문을 앞두고 중국측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 그의 방문은 야당 민진당이 추진한, 부득이한 일이었다며 달라이 라마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큰관심을 끌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중국은 달라이 라마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에도 걸으려는 강한 반대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이번 사건이 지난 1년간 공들여 추진한 양안 간의 협력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분석함.



● “中 헬기, 2차례 인도 영공 침범”(8/31)

-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 헬기의 인도 영공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인도 당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PTI 통신이 31일 보도함. 인도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지난 6~7월 영토분쟁 지역인 잠무카슈미르주의 레 인근 국경지대에서 26차례 정찰 작전을 수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군 헬기가 2차례나 인도 영공을 침해함. 또 8월에는 인민해방군 정찰대가 26차례나 인도 국경을 침범했다가 돌아감.
- 2차례나 인도 영공을 침범했던 중국 헬기는 군인들의 전투식량으로 추정되는 통조림 등을 투하했고, 국경을 넘었던 정찰대는 휘발유와 등유 등 흔적을 남김. 이와 관련 인도 육군 북부사령부 대변인은 “인도와 중국이 실효통제선(LAC)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추마르 인근에서 (중국) 헬기가 비행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국경지대에는 양국군이 혼동하는 LAC가 여러 곳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함. 그러나 중국 헬기의 영공 침해 당시 인도 당국이 헬기를 보내 대응하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 최근 영공 침해 사례가 잦아지자 인도 군은 레 인근 국경지대에 대한 정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일간 힌두스탄 타임스가 전함.



[참고 1] <北중앙통신이 전한 北유엔대표 편지 내용>(연합뉴스, 9/4)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유엔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3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4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그는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 위원회가 우리에게 그 무슨 해명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이미 천명한 원칙적 입장과 대응조치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다”고 밝혀 이 서한이 대이란 수출용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아랍에미리트에 압류된 후 유엔 제재위원회의 설명요구에 대한 응답임을 밝혔다.

다음은 중앙통신이 전한 편지 내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6월13일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조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전면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명했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른바 제재관련 위원회의 해당요청에 응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8월25일에 진행된 남조선 위성발사를 침묵으로 대한 것처럼 애초에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지 않았더라면 2차 핵시험과 같은 우리의 강경대응도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평화적인 경제건설 권리까지 빼앗으려는 강권과 위협에 대처한 우리의 행동조치는 너무도 정정당당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한 유엔 성원국의 응당한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사죄할 대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 조치를 걸고 적반하장격으로 만들어낸 ‘제재결의’를 우리가 인정하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우리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평화적 발전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 그 자체를 부정하는 적은 없다.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철두철미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제재에 대한 대응조치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미 명백히 밝혔다.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다. 우라늄 농축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 우리는 대화에도 제재에도 다 대처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다.

만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느 길이 조선반도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에 더 이로운가를 똑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의 사태를 지속시킨다면 우리는 이미 표명한 대로 또 다른 자위적인 강경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jyh@yna.co.kr
(끝)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09/04/0511000000AKR20090904042300014.HTML>